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등산과 치킨에 관한 단상(斷想)

얼마 전 조카들이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집에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함께 산에 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등산이 아니라 둘레길 산책이었지만 초등학교생에게는 꽤 힘들었나 봅니다. 함께 걷는 내내 툭툭거렸던 녀석들에게 사채관으로 돌아와 치킨을 시켜주니 계는 감추듯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그때 먹었던 치킨이 최고로 맛있었어요. 어느 집 치킨이에요?” 사실 등산 후 허기짐 때문에 치킨이 맛있게 느껴졌던 것인데,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어린 조카의 질문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희생과 고통과 인내 없이 열매와 위로와 영광만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 복음(요한 12,20-33)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뇌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성자께서는 성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아울러 당신 제자들을 향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고 말씀하신 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요한 12,26)라고 덧붙이십니다. 이처럼 주

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 생애를 본받는 것,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등산과 치킨’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비유는 자칫 왜곡되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중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향하는 바가 ‘아무개 신부님의 미사와 강론은 특별하다.’, ‘어떤 기도를 바치면 은총이 많이 주어진다.’, ‘특정 기도 모임 혹은 성지를 가면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린다.’라는 식의 마음가짐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화려하며 넓은 꽃길보다 초라하며 좁은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박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버겁게만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그날그날의 십자가로 여기며 묵묵히 짊어진다면, 즉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솔뫼성지, 충남당진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요한 12,27)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높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서 제 마음으로 내려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단다.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 음성에 수줍게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국성순 마리아 | 가톨릭사진가회